

충성대신보

제 209호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이용환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강수정 / 편집국장생도 이주형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209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오세준, 채호준, 일병 백준소

학교 창설 제56주년 기념행사

생도 가족 및 친지, 동문 등 함께하여
의미 되새겨, 11기(50주년) 및
31기(30주년) 임관 기념행사 병행

지난 10월 11일, 충성연병장에서 학교 창설 제56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학교와 충성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사관생도를 비롯한 생도 가족 및 친지, 동문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창설 56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죽전 낭독(국방부장관, 참모총장) ▶포상 수여(4명) ▶학교장 기념사 ▶열병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장(소장 이용환)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여 년간은 충성대인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육군3사관학교를 만들어 낸 도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담대한 용기와 불굴의 의지로 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는 도약의 100년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주무관 강수정



LIG넥스원, (주)풍산과 사관생도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 사관생도 실무 경험 확대



▲ LIG넥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풍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게 되는데, LIG넥스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우수생도 5명이 연구와 실험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풍산에서도 방산기술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수생도를 선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학년 전자·기계공학 전공자 중 성적 우수자와 전공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생도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학교장(이용환 소장)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방위산업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아 미래 우리 육군을 이끌 군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도전의 50년을 넘어 도약의 100년을 지향하는 우리 3사는 군사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겸비한 정예 장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강수정

학교는 사관생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와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8월 29일 LIG넥스원과의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 25일에는 (주)풍산과 협약을 맺으며 방산 분야와 연계한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생도 인턴십 프로그램은 생도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연구·실습 경험을 쌓아 방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장교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자·기계공학과의 4학년 생도 중 성적이 우수하고 전공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미래의 장교, 충성대 사관캠프 입소

전국 청소년 대상 사관캠프 성황리에 개최

지난 9월 6일(24-3기, 89명)과 9월 20일(24-4기, 81명), 10월 30일~31일(24-5기, 112명) 전국 고등학교(영주고, 신라공고, 서울로봇고, 인덕공고, 수원공고) 학생 282여 명을 대상으로 ‘충성대 사관캠프’를 진행했다.

‘충성대 사관캠프’는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경상북도와 협약 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사업으로 올해는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입소식과 안보 교육, 생도 생활관 견학, 체력 훈련, 군악연주회 관람, 역사관 및 영천호국원 참배, 호국기념관 견학 등 생도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주무관 강수정



▲ 충성대 사관캠프에 입소한 고등학생들이 체력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2024년 충성대 학술세미나」 개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 충성대 학술세미나 기념 촬영

학교는 10월 18일, 학교 내 충성강당에서 제26회 충성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래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3사관학교가 주관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국방부, 육군본부, 육·해·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육군미래혁신센터 등 군 관계자와 서울대, 숙명여대, 대전대, 대구가톨릭대 등 외부 대학교 교수진 그리고 사관생도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국방대학교 김영호 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신냉전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를 소주

제로 2개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먼저 첫번째 발표는 한국안보정책연구소 장혁 소장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의미와 한국의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국방대학교 이숙연 교수가 토론자로서 논평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숙명여대 김광진 교수가 '글로벌 두 개 전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박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전쟁패러다임'을 소주제로 충성대 연구소장 천윤환 대령이 사회를 맡았다. 첫 발표는 서울대 김상배 교수가 '미래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와 육군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대전대 군사학과 윤대엽 박사가 토론자로서 논평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윤세영 박사가 'AI기술 발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대구 가톨릭대 김갑진 박사에 의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 61기(4학년) 김하진 생도

리더로서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등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소장 이용환)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변화전망에 대해 군 연구기관 및 외부대학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한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도약 100년을 지향하는 우리 3사관학교도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군이 요구하는 미래의 소령 권영우

제9회 국방청렴문학상 최우수상 수상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령 권지민



▲ 제9회 국방 청렴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지민 교수와 초대받은 가족

국방부는 '제9회 국방 청렴문학상' 시상식을 10월 16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감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군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군장병,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9회 국방 청렴문학상' 공모전은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국방 청렴문학상 공모전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병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약 200편 가까운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한국문인협회 소속의 권위 있는 문학가들에 의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선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최우수상으로 본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권지민 소령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으며, 가족이 초청 받아 국방컨벤션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만 부여받았던 시상식 소감문 자리에서 권지민 소령은 "교수로서 진행하는 논문심사과정과 군 내 보직과 관련된 인사 문제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이 사람을 선발하는 군 조직 특성상 그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감성에 연연하지 말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부터 군 내 청렴이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달하였다.

대령(진) 최재호



▲ 시상식 소감문을 발표하는 권지민 교수

제11회 육군 군가 합창 경연대회

‘화랑의 후예’ 팀 장려상 수상

1중대 61기(3학년) 생도 홍지연 등 28명



▲ 군가합창중인 화랑의 후예팀

지난 9월 10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1회 육군 군가합창대회에서 1중대 61기(3학년) 생도 홍지연 등 28명이 팀명 '화랑의 후예'로 출전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 대회는 육군본부 주최로 군가 부르기를 통해 부대 단결력을 키

우고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월부터 열린 각급 부대별 예선에는 63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최종 결선에는 9개 팀 350여 명이 진출했다. 화랑의 후예팀은 전선을간다, 푸른꽃밭에 2곡을 선정해 완성도 높은 군가 및 퍼포먼스를 펼쳤으

며 그 결과 장려상과 함께 상금 7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훈육관은 "생도들의 열정과 팀워크가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생도들의 단합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관 강수정



▲ 장려상을 수상한 화랑의 후예팀

2024 충성제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24년 충성제가 열렸다.
가족·지역주민과 함께 부대개방행사로 진행된
충성제 기간에는 체육대회, 바베큐파티,
군악연주회, 전시회/체험부스, 별빛가요제,
생도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주무관 강수정, 60기 이주형 기자생도

1일차

1일 차 행사에는 생도 체육대회 생도 바비큐파티,
군악연주회가 진행되었다. 생도 체육대회는 8개 종목으로
축구, 피구, 발야구, 응원전, 줄다리기 이벤트게주,
캐터필러 릴레이, 계주가 진행되었다. 군악 연주회에서는
울랄라3사, 육군의장대(병장정승환, 상병 김민재),
3사교 군악대의 공연이 충성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줄다리기 시험

사관생도 체육대회

체육대회 종합 우승(3중대)

캐터필러 릴레이

응원전 우승
발야구 우승
계주 우승
캐터필러 우승

미술사 고두영 특별공연

군악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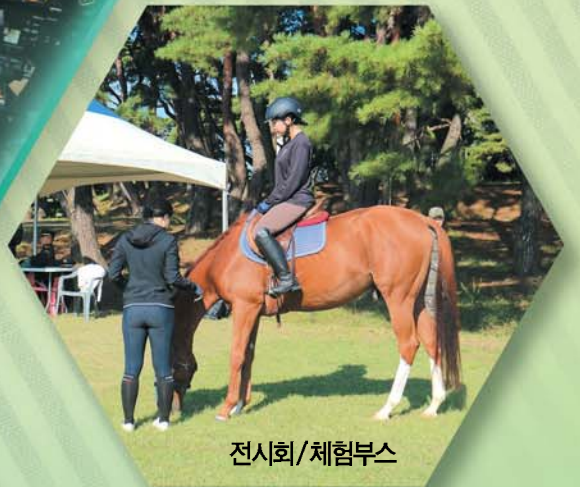
2일차

2일 차에는 부대개방행사, 가수동기회·학부모 모니터링단·협력대학 모집홍보위원의 초청 행사, 응원부 경연대회, 별빛 가요제, 생도의 밤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행사는생도 장기지랑과 영천시민희망자, 초청가수 (한요한, 오마이걸, 이채연)가 공연을 진행하였다.

초청가수 공연



별빛 가요제



전시회/체험부스

3일차

3일 차에는 11기 및 31기 임관기념 행사, (주)교촌에프엔비 업무협약식 학교 본청 개관식 창설기념식 행사가 진행 되었다. 창설기념식 행사에서는 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 육군항공 축하비행이 있었고 3일간의 충성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1기 및 31기 임관기념 행사



학교 본청 개관식



태권도 시범



창설기념식 행사

생도, 교수의 서재를 탐방하다!

60기이 주형, 강준성, 61기이 예찬기자생도

국방시스템과학과 **김태겸** 교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국내 문학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문학의 불씨가 다시 붙은 요즘, 교수의 서재가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이자 유행이 아닌 태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연락과 만남만 이어가도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Q 인생에서 책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책은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쓰여진 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도구죠. 그렇다면 책을 읽는 독자도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꼭 독후감을 쓰라기보다는 짧게나마 작가와 소통을 하는거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당신의 이런 생각에 나는 동의합니다’ 등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본인만의 생각이 정립이 되고 나아가 가치관이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나이가 들면서 또는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약간씩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런 경험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간만의 내면의 간사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Q 책을 읽기에 좋은 날씨인데 추천할 도서는 무엇입니까?

A 최근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한강은 이전에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 했었습니다. 그녀의 추천작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저지른 살인과 그로 인한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와 죄책감을 깊이 탐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본질과 인간관계를 탐구합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면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기 탐구와 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 산티아고와 거대한 물고기와와의 싸움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고독을 그립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고독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추천작들이 있지만 생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책들로 권장해드렸습니다.

Q 세상을 살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궁금합니다.

A 제 개인적인 추천작은 이근후 작가의 ‘어차피 살 거라면, 백살까지 유쾌하게 나이드는 법’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제 강의를 들어본 생도들은 알겠지만 교수소개에서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다는 문구를 소개해준 적이 있을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작가라고 생각하고 항상 달릴 수만은 없으니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이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누구나 사는 건 다 힘들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넘쳐납니다. 특히, 군 생활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들쭉 날쭉 하죠. 이럴 때마다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와 빗대어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제 사고와 너무 비슷해서요. 생도들도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려는 만큼 뭐든지 잘 해나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고 다방면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겁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일례로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그 밖의 특별한 날마다 항상 챙겨야 할 것 같고 연락을 안 드리면 뭔가 죄송하거나 미안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군 생활을 1~2년 할거라면 괜찮지만 2~30년 할 사람이 이렇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꼭 군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해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엮히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이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겠어요. 벅찬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2~3명의 사람만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선택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홍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사람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관계들이 있거든요,

Q 독서를 많이 하는 생도와 그렇지 않은 생도를 비교해 본다면,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끄럽지만 저도 어릴 때 책 좀 많이 보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표현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올바른 표현은 단어선택부터 맞춤법, 문장의 구조 등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두서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은 그 사람의 상상의 폭을 넓혀주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여러 작가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또 그 작가들이 만나본 사람들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폭넓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책을 많이 안 읽는 생도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히 정보전달의 매개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상상의 폭과 판단력은 더 뛰어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들에게 책을 권하는 이유는 올바른 표현력으로 집대성된 책을 읽음으로써 앞으로 군 생활 간 보고서 작성 능력과 현상에 대한 표현력을 정확히 배웠으면 하는 겁니다. 문서 작성을 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상급자 또는 인접부대에 이 문서의 의도와 행동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작성된 문서 하나는 사람을 대면할 필요 없이 그 시간에 또 다른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Q 생도들을 위한 교수님만의 독서 장려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저만의 독서 장려방법은 우리 생도들의 생활패턴에 맞는 책을 권해주고 싶어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편소설보단 짧은 주제로 연재된 책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우리 생도들은 하루 일과 내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평일에는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나마 짧은 주제를 다룬 책으로 여유를 찾고, 위에서 언급한 장편소설은 비교적 여유 있는 주말에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무조건 종이책으로 읽었으면 해요. 집중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전자책을 읽다 보면 다른 유혹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SNS, 관심 있는 사이트의 알람 등으로 오롯이 그 책에 몰입할 수 없는거죠. 본인이 직접 한 장씩 책을 넘길 때 종이의 따뜻함과 약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위 독서방법은 기존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생도들에게 독서습관을 들이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기때 추천합니다.

국군의날 파견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생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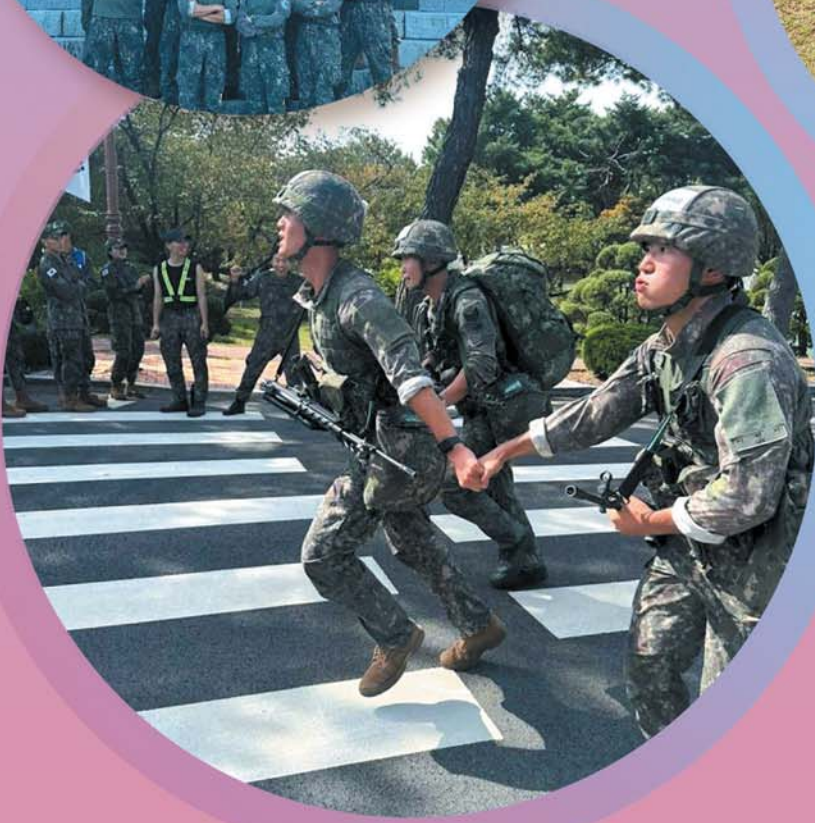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제11회
커맨디프 경연대회

10월 3~5일까지 육사에서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에
참석한 생도들



24-2기 생도 지휘군무 교대식

24-2차 일반학이 시작함에 따라 지휘군무제 구성원도들 변경되었다. 충성대 신문사에서는 생도대의 지휘군무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단장 생도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여단장 생도로 발탁된 이상훈 생도는 23-S 교훈보좌생도 직책을 시작으로 이후 중대장보좌생도, 교훈담당생도, 중대장생도 이외에도 기훈파견생도직을 역임하며 지휘군무제도 속 여러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상훈 생도는 인터뷰 중 기본과 원리와 원칙 준수 강조와 더불어 열린 사고로 긍정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지휘 방향을 설명했다.



Q 인터뷰에 앞서 24-2차 여단생도로 발탁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마지막 학기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탁되었습니다. 명예롭고 뜻깊은 자리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감사 한 일입니다. 생도들을 위해 때론 제 역량을 벗어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생도 생활에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Q 임기를 시작하며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할 말이 많습니다. (웃음). 우선 생도들이 현명하게 생도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스스로 육군3사관학교를 선택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건데, 장교로서 군생활을 준비하는 이곳에서 끌려온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도들은 생도생활에 2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휘군무제를 통해서나, 아니면 향후 장교가 될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생도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하루과업을 바라보는 습기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번 자치군무제 생도들의 임명장 수여는 기존 여단장님이 아닌 생도대장님이 수여를 했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생도대장님이 직접 수여를 했던 이유는 24-2차가 시작되고 생도대 간부 구성원들을 판단하여 지휘군무생도들의 영향력, 소위 힘을 조금 더 부여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생도 통제를 오로지 훈

육요원님들의 몫으로만 한정하기보다, 지휘군무제를 통해 생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생도 여단 본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기에 생도대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요?

A 60기 생도는 무사임관을 61기 후배생도들은 올바른 진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면한 큰 문제는 없으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는 개인의 생도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것, 대의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기본을 지키며 매순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 군기강의 풀리는 연말입니다. 풀어지는 마음에 현혹되지 않고 사관생도로서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면 후배생도들의 진학도 동기생도들의 무사 임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Q 살아있는 자치군무제, 명예에 의거한 자치 군무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지휘군무 생도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맡은 바 임무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자긍심과 자부심이 모든 생도들에게 내재된다면, 리더십과 팔로우십도 선순환 구조로서 잘 발휘될 것입니다. 소속에 대한 자긍심과 팔로우십을 가진 동기들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리더십을 가진 동기들로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명예에 의거한 자치 군무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Q 생도들의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단본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소모적이고 해결이 필요한 사건 발생 시 여단본부는 생도들 대상으로 규칙이나 규율을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미찰에 대해서도 여단본부는 귀를 기울이고 간부님들에게도 합당한 건의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도들과 간부님들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나가며 중개자 혹은 연결자로서의 임무와 함께 해결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기 동안 생도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 설명해주세요.

A 서두에 말한 내용처럼, 60기의 무사 임관과 61기의 올바른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생도 개개인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생도들이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이행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힘쓸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아래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60기 이주형 기자생도

새로운 시작을 알린 생도식당

24. 9. 2. 부 생도식당이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을 체결하며 민간위탁으로 개편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식당에 생도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다채로워진 메뉴를 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도식당은 기존 단일 메뉴였던 것과 달리, 개편 후 한식과 일품, 간편식, 라면, 웰핏(샐러드)등 생도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생도들은 메뉴가 다양해서 무엇을 먹을까 매번 고민하는 시간까지 즐겁다는 반응입니다. 오픈기념 행사가 개최되었고 추첨권 뽑기 등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개편된 식당은 내년 충성제 및 다가올 다양한 행사들에 특식을 제공하며 생도들의 입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한편 권해영, 박은희 영양사님은 “건강한 식사를 드시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60기 이재원 기자생도

칼럼 I



대위 오 자 훈
(이학처 컴퓨터공학교수)

사관생도는 단순한 장교 후보생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이끌 어갈 핵심 인재로서 역사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국방의 미래이다. 사관생도들은 명예, 충성, 용기, 그리고 조국과 하나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리더로 성장한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양성하는가는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 석좌교수 조벽은 현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이 개성과 창의성이 대두되는 21세기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특히 단순 암기와 계산에 집중하는 **MAD(Memorizing, Analyzing, and Data-processing)** 교육, 과

도한 억압과 규율로 개인의 개성과 주체성을 박탈하고 일률적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SAD(Slavish, Admission-oriented, Dreamless)** 교육, 과보호로 인해 근성과 독립심을 결여시키고 의존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BAD(Beggar-minded, Arrogance, Dependent)** 교육이 해롭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이 개인의 창의성과 주체적 사고를 억압하고, 개성과 열정을 저하시키며, 근성과 독립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수, 훈육

않은가? 이러한 MAD, SAD, BAD 교육 방식은 생도들의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주체성을 억압하여 그들이 진정한 장교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다. AI 시스템이 편향되거나 질 낮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면 부정확한 결과를 출력하는 쓸모없는 시스템을 낳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 생도들도 단순암기식 교육과 과도한 통제와 불신의 환경에서 교육받는

순암기식 교육, 통제 기반의 훈육에 비해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것이다. 머신러닝 모델도 다양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내듯이, 사관생도들도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훈육을 한다면 우리 생도들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선도하는 육군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관생도 교육·훈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사고를 예방(또는 적발)하는 것이 아니다. 생도들이 창의성과 책임감을 갖고, 장차 임관 후 야전과 사회에서 마주할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제공하고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명예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신독을 키우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국방과 국가를 이끌어갈 사관생도들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창의성(Creativity)과 책임(Responsibility)을 중시**하는 교육·훈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관생도들이 **신뢰(Trust)기반의 독창성(Originality)**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MAD, SAD, BAD 교육이 아닌 CR, TO 교육으로

요원들은 흔히 '나 때는 더 심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과거의 교육과 훈육시스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 암기와 계산 위주 교육으로 사관생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능동적 사고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도한 검열과 통제, 불신에서 비롯된 외박 복귀 간 소지품 검사 등으로 생도들이 죄수처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생도들이 근성을 갖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교육,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완화하여 기준미달 생도들을 양성, 임관시키고 있지는

다면 졸업 후, 부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단순무식하게 통제하려는 장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는 부하들의 주체적인 임무수행을 격려하기보다 일률단편적으로 억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저해하고 변화무쌍한 4세대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아닌 단순암기한 전술, 작전, 전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무능력한 지휘관이 될 수 있다.

생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다려주고, 책임을 부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책임감을 키워줘야 한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교육·훈육은 단

칼럼 II



가군 박 희 성
(인문학처 군사사학과 교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 등을 통한 긴장 고조 등 세계 여러 곳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합부로 진행되는 안되는 것이며, 고심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정의로운 전쟁' 기준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의 진 베스키 엘슈타인(Jean Bethke Elshaint) 교수의 기준으로 전쟁의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해보겠다. 엘슈타인 교수는 7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하였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전쟁은 모든 대안이 소진된 후에 선택되어야 한다. 우크라이

나는 방어 전쟁이지만 러시아는 외교적 대안을 배제하고 무력행사를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도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국가 주권 보호는 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각각 러시아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 한다는 정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비례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전쟁 수단과 목표의 비례성은 윤리적 기준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는 광범위한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비례성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해야 한다: 민간인 보호는 전쟁 윤리의 핵심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빈번하다.

승리 후 굴욕 강요는 금지이다: 전쟁

우선시하여 전쟁 윤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인 보호와 비전투원에 대한 구분이 약화되고, 장기적인 평화 구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의 윤리적 틀을 제공하고,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준을 실질적인 규범으로 삼아 무력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전쟁의 정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규범이 확립되면 전쟁이 불가피할 때에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 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정의로운 전쟁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쟁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전쟁 윤리의 실질적 적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쟁에서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에 대하여

합법적 선언이 선포되어야 한다: 전쟁은 적법한 정부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부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특수 군사 작전'으로 포장하며 공식 선언을 피했었다.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전쟁이 정의로우려면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는 높은 인명 손실에도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승리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후 패배국에 대한 굴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정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반감을 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 되고 있다.

결론: 현대 전쟁에서 정의로운 전쟁 기준을 지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과 주변국과의 여러 분쟁에서는 비례성과 민간인 보호가 종종 무시되고 있다.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적 필요와 이익을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홍 주 의
(前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누구나 언제부턴가 당연하고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다. 있을 유(有), 갖추 비(備), 없을 무(無), 근심 환(患)자를 쓴다. 이 말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뜻으로, 서경(書經)의 열명편과 춘추좌씨전에서 유래된 말이다.

<<서경>> <열명편>은 은(殷)나라 때 고종이 부열이란 현명한 재상을 얻게 되는 과정과 부열이 고종에게 어진 정사에 대한 의

견 및 그 의견을 실행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유비무환이란 말은 부열이 고종에게 한 말 가운데 들어 있다. “생각이 옳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한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게 되면 공을 잃기 쉽다. 그러니 일이란 다 갖춘 것이 있는 법이려니와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된다고 했다.”

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끊임없이 항상 전시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전쟁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부대를 방문하여 하신 역설적이나 가슴을 울리는 “군대가 아무 할 일 없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며, 대통령이 그에 맞는 외교와 정책을 수행하기 위

부대단위로도 저마다의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강한 무기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세계사의 많은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작전을 수립하고 명령하는 지휘관으로부터 작전을 실제 수행하는 모든 보직의 구성원까지, 충분한 이해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전투수행능력이 철저히 준비 되어있어야만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만이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억지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군대를 할 일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전국 각처에서 묵묵히 맡은바 보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군 장병들께 감사드리며, 유비무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이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예방의학(豫防醫學)과 유비무환(有備無患)

한의학에는 미병(未病)을 치료하는 개념의 예방의학이 있다. 미병이란 아직 증상이 병세로 발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질병으로 이환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을 일컫는다. 이미 질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를 하느라 노력하는 것보다는,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의학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법인 것처럼, 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한 준

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강한 군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매일 반복적이고 힘든 훈련을 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왜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는지 명시적이고 뚜렷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예방의학적으로 관리하고,

학교발전자문위원 칼럼



박 동 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저서 『군인과 국가』에서 군이 특수한 직종으로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은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공동성이라고 했다. 과거의 독일과 일본, 그리고 현대의 미국이 강한 이유는 군의 장교단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난 80여 년 동안 분단이 고착되었고, 지금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여 안보와 국방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을 맞았고, 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봉급 200만원시대가 도래했다. 게다가 사기를 먹고사는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제복에 대한 존중은 전보다 못해졌다. 또한 군인에 대한 직업안정성과 체감복지는 사회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초급간부 지원은 하락하고 중견간부들은 군을 떠나고 있다.

사관학교는 미래의 군을 이끌어 갈 예비장교들이 모인 곳이다. 그들을 생도(生徒, cadet)라고 부른다. 생도는 전문 직업으로 미래의 군을 선택한 청년들을 일컫는 명예로운 호칭이다. 사관학교는 장차 군의 장

교단이 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요람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봉사에 대한 전문직 윤리 규범으로서의 책임감을 충전하는 곳이다. 또한 사관학교는 장차 국가 안보를 책임질 청년들이 유기적 일체감과 자각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육군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는 육사와 3사가 있다. 3사는 1968년 1.21 사태와 월남전 파병 등 안보위기에서 자주국방을 계기로 우수한 초급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창설했다. 3사는 지난 56년의 역사를 통해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고, 1996년부터는 대학 3.4학년과정을 교육 후 임관하는 현재의 체제로 변신했

안정성이다.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법으로 인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도 장기복무심사의 전형을 거쳐야 하는 차별의 철폐가 시급하다. 따라서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도 육사와 같이 임관과 동시에 전원 장기복무자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는 2023년 2월, 신원식 전 의원이 주도하여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3사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했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인사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관련법에 따라 군에 뜻을 두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도 단기복무자로 차별 받아 온 3사 출신 장교들을 임관 시 장기복무자로 임명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이 걸린 군 초급간부 확보에 대한 근원적 문제인 직업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수인원의 안정적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이 문제는 3사 출신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을 사는 한국사회 전체의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3사 관학교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한 장교를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군은 3사관학교의 전통과 역할을 미래 강군에 연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군을 직업으로 선택한 청년들에게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구비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군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제복 입은 자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기풍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줄탁동시(咄嗟同時)를 이뤄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법의 개정이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3사관학교와 5만여 동문, 그리고 군과 사회 전반에서는 선진 미래 강군을 준비하는 지혜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3사를 살리는 일, 지금이 골든타임

다. 「군인사법」 제6조에서는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며, 장기복무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사를 제외한 모든 임관구분의 장교들은 단기복무자로 되어 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직업적으로 군을 선택한 인원들이 육사와 동일하게 2개의 학사학위를 받고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 시기에 임관함에도 불구하고 단기복무 장교다.

이것은 사관학교를 지원하여 생도 생활을 통해 장차 전문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명백한 차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군 3사관학교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직업군인의 최대 관심사는 직업적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이탈로 이어져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회기에 처리를 못해 개정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다행히도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2024년 8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의원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11호)을 다시 제안했다. 제안서에서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3사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5만여 명의 3사 출신 동문과 가족, 국민들이 적극 성원하였으며, 수 천여 건의 댓글을 통해 조속

2024 트렌드 노트

지지않는 트렌드, 가족



김민성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요즘, 사람들의 생활 속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원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 트렌드는 가족이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 시대에 가족을 트렌드로 꼽는 것이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족은 있기 마련이다. 늘 존재하는 동시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족,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

연도별 ‘함께하다’ 연관 대상 순위 변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No.	키워드	비중	No.	키워드	비중	No.	키워드	비중	No.	키워드	비중
1	아이	13.7%	1	아이	13.5%	1	아이	13.2%	1	아이	13.0%
2	친구	11.7%	2	친구	11.9%	2	친구	12.4%	2	친구	12.8%
3	엄마	9.0%	3	엄마	9.2%	3	엄마	8.8%	3	가족	9.1%
4	가족	7.2%	4	가족	6.8%	4	가족	7.2%	4	엄마	8.0%
5	남편	6.3%	5	남편	6.3%	5	남편	5.7%	5	아기	5.7%

[도표 1] 연도별 ‘함께하다’ 연관 대상 순위 변화
출처 |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 커뮤니티 · X · 인스타그램, 2020.01.01~2023.12.31

‘함께하다’라는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키워드다.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배우고 모르는 건 독학하고 심심하면 나가서 혼밥하는, 어느새 혼자서 익숙해진 시대정신 속에서 ‘함께’를 언급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동사를 사용할 때는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필히 드러난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 말할 때, 그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으로 ‘가족’을 많이 언급한다는 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꼭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다. 한 끼 정도는 외식을 하면서 한 주의 곤항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쏟는 시간을 가진다. 때로는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전까지는 ‘모녀여행’, ‘모자데이트’ 같이 엄마와 자녀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주목받았다면, 앞으로 선호될 풍경은 3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 모습이다.

가족에게만 부여되는 가치, 만족감 · 행복감 · 편안함

친구 연관 서술어			가족 연관 서술어		
No.	키워드	비중	No.	키워드	비중
1	좋다	11.4%	1	좋다	14.4%
2	좋아하다	8.0%	2	좋아하다	6.5%
3	맛있다	3.5%	3	맛있다	4.5%
4	잘하다	3.4%	4	즐기다	3.2%
5	예쁘다	2.8%	5	사랑하다	2.9%
6	재미있다	1.8%	6	잘하다	2.1%
7	즐기다	1.5%	7	예쁘다	2.0%
8	귀엽다	1.5%	8	만족하다	1.9%
9	사랑하다	1.3%	9	행복하다	1.8%
10	가고 싶다	1.3%	10	편하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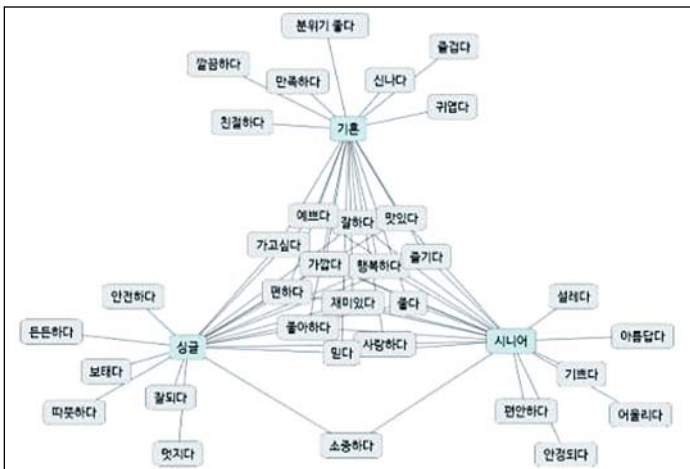
[도표 2] ‘친구’ vs ‘가족’ 연관 서술어 TOP 10 비교

출처 |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 커뮤니티 · X · 인스타그램, 2020.01.01~2023.12.31

오늘날 친구와 가족은 가장 먼저 좋은 것을 할 도움이 될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혼자 있어 외로

게 공유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무엇을 공유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는 차이가 있다. 친구는 코드가 맞는 존재라서 좋다.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나를 닮았다며 사다 준 캐릭터 키링이 ‘귀엽다’. 심심한 날 같이 PC방에 가고 싶다’고 연락할 사람은 친구다. 가족은 코드보다 공통된 역사로 엮인다. 추억이 담긴 장소가 많고, 생애주기별로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속을 터놓으면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다른 관계에 비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다. 자녀 세대는 무엇으로 부모님에게 만족감을 선사할지 고민한다. 만족한 부모님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지속되는 관계라는 믿음은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감을 준다. 여전히 가족만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이는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형태보다 가치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모든 가족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형태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해 온 친구도, 입양한 반려묘도 만족감, 행복감, 편안함을

울 때 연락하거나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든든함과 따뜻함을 느끼기도 한다. 기혼인 가구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든 후에도 원가족에게도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다. ‘친절하다’, ‘만족하다’, ‘깔끔하다’ 같은 키워드는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 간 곳에 대한 표현이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나설 때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가는 곳보다 더 정갈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을 찾는다. 아이와 부모 조부모 3대가 나설 때에는 아이에 대해 ‘귀엽다’는 표현도 함께 떠오른다. 가족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다. 시니어의 ‘가족 이야기’는 자녀 세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오랜만에 모여 보내는 가족휴가에 대한 설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새로운 삶을 찾으며 느끼는 인정감, 흠어진 가족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기쁨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에게 가족은 계속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다는 자량이자 자신감이기도 하다.



[도표 3] 라이프 스타이지별 ‘가족’ 연관 서술어 TOP 20 연관어 네트워크
출처 | 생활변화관측소, 커뮤니티, 2020.01.01~2023.12.31

이시대의 효도, 물질보다 시간

‘효도’ 연관 ‘효’ 키워드 TOP 5			
2020년		2023년	
No.	키워드	No.	키워드
1	효도선물	1	효도여행
2	효도폰	2	효도관광
3	효도여행	3	효도폰
4	효도관광	4	효도선물
5	효도라디오	5	효켓팅

[도표 4] ‘효도’ 연관 ‘효’ 키워드 TOP 5
출처 | 생활변화관측소, 블로그 · 커뮤니티 · X · 인스타그램, 2020.01.01~2023.12.31

고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변화 요소는 있다. 바로 함께하는 씬(scene)이다. 특히 효도의 장면에서 변화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효도’의 연관어 중 ‘효’로 시작하는 키워드들만 살펴보면, 3년 사이 떠오르는 ‘효’는 ‘효도관광’, ‘효도여행’, ‘효켓팅’이다. 반면 ‘효도선물’, ‘효도폰’, ‘효도라디오’ 가 하락했다. 변화의 일차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종식이 있다. 그간 가지 못했던 여행과 관광을 재개하며 효도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하여 선물이나 휴대폰, 라디오와 같은

물질보다 여행과 관광, 콘서트 티켓팅이 뜨는 점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기억 회복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부모님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겨졌던 휴대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휴대용 라디오 제품을 사드리는 것은 ‘챙김’이 될 수 있지만 ‘효도’에서는 멀어졌다. 대신 새롭게 ‘효도’의 의미가 된 것은 티켓팅이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자녀가 예매하는 것이다. ‘효켓팅’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디지털 환경 익숙도 차이를 효도로 커버한다. 자녀가 어릴 때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콘서트장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티켓팅을 하고, 콘서트 준비물을 같이 챙기고, 콘서트장 앞에서 기다린다. 함께하는 시간, 부모님이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효도다.

나기며: 변화는 변화일 뿐, 문제 아니야

트렌드를 읽을 때 가장 중시되는 태도는 중립적인 태도다. 트렌드는 변화하는 현상 자체일 뿐, 좋은 트렌드와 나쁜 트렌드를 구분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족도 그렇다.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변화하는 것일 뿐, 그 변화가 좋거나 나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족은 위기도, 문제도 아닌 ‘지지 않는 트렌드’다.

가족의 변화를 정리해보자. 데이터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가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본가를 나와 막 독립할 때도,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도 거듭 살피고 돌보는 존재는 ‘내 가족’이다. 물리적으로 멀어진 만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시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가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가족은 넓어지고 있다. 만족감과 행복감, 편안함은 어떤 대상을 나의 가족이냐 다름없다고 인정하고 순간에 나타난다. 앞으로 만족감, 행복감, 편안함, 이 세 가치를 누구에게서 얻는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지켜보자. 그 확장 범위가 곧 당대의 가족일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I

독서는 의무,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는 없다



대위 고 은비(3사 55기 / 보병)
육군3사관학교 생도여단

- 55기 생도과정 6등 졸업(참모총장상)
- 초군반성적우수상
- 23-5기 대위지휘참모과정 교육성적우수상
- 3사 출신 여군 최초 전임직 교수선발 (정치외교학과)

과학적인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 졌다면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평소 자질을 갖춘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다.

- 중국의 수학자 华罗庚(화뤄경)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소소하지만 효과는 100%인 생활습관 3가지를 소개한다.
#조기 기상 #감사일기 #독서

이 3가지는 내가 생도 때부터 시작한 소소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습관들이다. 피로감을 느끼더라도 우선 기상하여 커피 1잔으로 정신을 깨우고, 감사일기를 작성하며 어제 하루를 돌아쳐보고, 독서를 통해 부족한 지식을 채워나가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말에는 읽었던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구절들을 필사도 하고, 독후감으로 기록한다.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내 습관이고 취미였던 이 세 가지가 나에게 가져다준 행복과 결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04시의 조기 기상, 생도시절 생활관 내에서 개인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 시작했다. 이제 나의 아침시간은 내 하루를 결정짓는, 일상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기기상은, 집중해서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사일기의 시작은 기초군사훈련 때 시작했던 **수양록**이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아침식사를 주는 것에 감사했던 나의 감사일기장 덕분에, 나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와 일희일비 하지않는 지금 내 삶의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기록이 담긴 일기장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쳐보고 부족한 모습은 반성하여 고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내 하루 일상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의무감을 가진 루틴이다. 독서의 중요성은 백 번, 천번을 말해도 여전히 부족할만큼 인생에 있어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중요한 습관이다. 또한 내가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24년

도 위탁 교육과정에 선발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독서 덕분이었다.

지금까지 읽은 도서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국제정치·외교에 관한 분야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년 9월 중국에서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분야의 독서가 이제는 나의 자아와 적성이 된 것이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내용 중에서 의문이나 호기심이 생길 때는 내가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춰 고민해보고, 관련 자료를 검색도 해보고 기록도 남겨보는것을 추천한다. 그러한 경험들과 기록들이 모여 미래의 본인모습이 될 것이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길에 배어 나오고, 길에 배어 나오면 길으로 드러나고, 길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하게 하고, 남을 감동하게 하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중용 23장

과연, 내가 게을렀다면, 그리고 나의 이러한 생활습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모습일까?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도 나는 4시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이제는 코끝이 시리는 차가운 공기를 느끼면서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독서를 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모두에게 개인이 꾸준히 하는 좋은 생활습관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정진해나가기를, 그리고 그 결실이 어떠한 선물로 돌아오는지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II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대위 이 승환(3사 55기 / 보병)
72사단 201여단

- 공수기본제824기 용기상 수상 (특수전학교장상)
- 18/ 19년 충성제 행사 유공 수상 (육군3사관학교장)
-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 장려상수상 (공군사관학교장)
- 제55기 생도 과정성도상 수상 (육군3사관학교장)
- GP 감시기지/ 군기강화집작전 유공 수상 (21사단장)
- 초군반(OBC)/고군반(OAC) 성적우수상 수상 (보병학교장상)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위탁교육선발 (25년 입학 예정)

“국방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2020년 55기 입관식 때 국방부장관님께 입관 사령장을 친수 받으셨던 말이다. 오만 촉광의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

고, 드디어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설렘, 그리고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했던 나의 군 생활은 어느덧 근 5년이 훌쩍간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이지만 여기서 느꼈던 비를 정리하여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대위지휘참모과정을 수료하기 전, 나는 상비 사단에서 실병지휘를 하는 늑름한 중대장이자 지휘관이 되는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다른 길로 인도했다. 동원사단으로 부대 분류가 되면서 비실병 중대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전개에 당황스러웠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 군 생활을 해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며 대위지휘참모과정을 수료했다.

각 부대마다 다양한 특성과 환경을 갖기 마련이지만, 전입 후로도 몇 개월 동안 계속 길을 헤멜 정도로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를 이토록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계속해서 고민했다. 그렇게 도달한 나의 결론은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조바심과 욕심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었다. 이를 깨달은 후부터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그리고 생각했다. “동료 간 부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동료 간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크고 대단한 일부터 하는 건 욕심이라 생각했기에 작은 일부터 해나가기로 했다. 깔끔하고 정리 정돈을 잘하는 내 장점을 살려 내 자리부터, 공용 사무실과 창고 정리부터 틈틈이 했고,

솔선수범과 적극성으로 동료 간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모진 작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섰다. 희생정신과 책임감으로 모두가 부담스럽고 꺼려 하는 60mm 박격포 사단 주 교관 임무까지 도맡으며 집체교육부터 고풍탄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주변 동료들과 비교하며 잘하고자 욕심을 냈던 지난날의 나는 작은 일조차도 실수가 만연했던 문제투성이 그 자체였다. 그러나,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 집중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노력할 때, 어두웠던 시간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리할 수 있었다. 힘들었던 시기는 비단 이뿐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소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고난의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다.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겨내기 위해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며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좋다. 나는 내 생각을 글로 적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난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칙흑 같은 긴 밤이 영원할 것 같아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이 시기는 분명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게 새벽녘의 따사로운 햇빛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현명하고 늑름한 후배 장교들이 되기를 바란다.

모교 창설 제56주년 기념식, 11기 임관 50주년 및 31기 임관 30주년 기념식 참가



지난 10월 11일 금요일, 모교 창설 제56주년 기념식과 11기 임관 50주년 및 31기 임관 30주년 기념식이 충성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동문회장과 사무총장, 총괄/기획분과 위원장, 홍보분과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우선, 오전에는 11기 임관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1기는 모교에서 최초로 사관생도로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첫 기수다. 또한, 1974년에 845명이 임관하여 14개 병과로 분류되어 전·후방 각지의 야전부대에서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6명의 장군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기수다. 임관 기념식에서 박경중 총동문회장은 5만 동문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하였고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11기 모든 동문들이 임관 60주년, 70주년이 될 때까지 언제나 건강할 수 있기를 두손모아 기원하였다.



오후 행사는 모교 본관 개관식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년여동안 약80억원의 BTL사업을 통해 그동안 낡았던 본관과 생도 생활관, 강당, 야외강의장, 사열대 등이 최신식 시설로 신축되어 이를 기념하고 지난 5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새

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을 기약하는 행사였다. 이어서 모교 창설 제56주년 기념식이 충성연병장에서 11기 임관 50주년 및 31기 임관 30주년 기념식과 병행하여 식전 행사 및 생도들의 충성의식과 함께 거행되었다. 더욱이 이번 주간에는 생도들의 문화축제인 충성제가 있었던 터라 행사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풍성하였다.



모교는 1968년 10월 15일 창설된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명예·충용'의 교훈 아래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정예장교 15만명을 배출한 대한민국 최대의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로서 사관생도들의 다양한 역량과 사회경험요소를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국가방위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3사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창설 기념식에서 박경중 총동문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동문들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화합과 단결로 극복해 왔으며, 모교의 발전과 3사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함께 매진해 왔음을 상기하며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미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기로에서 모교와 동문들이 더욱 단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31기 임관 30주년 기념식이 31기의 역사가 담긴 기념영상 및 신상대(6기) 재향군인회 회장 및 이순진(14기) 전합참의장 등 여러 동문들의 진심어린 축하영상과 함께 진행되었다. 31기는 1994년 9월 1일에 752명이 임관하여 그 해 김일성 사망이라는 뜨거운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의 선봉으로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이날 31기 동기회는 먼저 하늘의 별이 되어 마음속에 붙었던 12명의 사랑스런 동기들을 떠올리며 모두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 갈 것을 다짐하였다.

3사 총동문회





제16회 총동문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지난 9월 21일 토요일, 총동문회 축구동호회는 아산 선장축구장에서 제16회 총동문회장기 동문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총동문회장기 축구대회는 2004년부터 매년 9월에서 10월중에 개최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동문 축구인들의 친목과 체력을 다지고 모교 홍보에 앞장서 왔다. 이날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이러한 축구대회가 단순한 친선모임이 아닌 우리 동문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게 되는



영향력과 전통을 갖춘 행사로 명맥을 유지시켜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대회는 총6개팀 약2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아침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상황에서도 연령을 뛰어 넘어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힘껏 발휘하여 프로와 맞먹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 주었다. 특히, 박형규(14기) 동문은 청년과 같은 체력과 기량을 보여 주어 주변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이날 대회 우승컵은 서울 FC가 차지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회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진행을 한 인금환(23기) 축구연합회 회장과 임원진 및 집행부는 물론 축구장 섭외에 노력한 조인성(26기) 아산 축구협회 회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총동문회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 모교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다.

3사 총동문회



총동문회, 분과위원장 및 수석부회장 회의 개최



지난 9월 6일 금요일, 총동문회는 박경종 총동문회장 주관으로 분과위원장 및 수석부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총동문회 주요 현안 과제를 토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회의는 총동문회 분과위원회 중심 활동 방안, 10년단위 동문 후원기수 자매결연 지속 방안, 10년후 컨벤션 기능을 가진 호텔형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1



인 월1만원 납입 운동’ 활성화 방안, 임관시 장기복무 관련 군인사법 개정 추진 평가, 총동문회 브랜드화를 위한 ‘모고’ 검토, 2025년도 총동문회 달력 사진 선정 등에 관해 주제별 현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었으며, 향후 토의결과를 정리하여 세부적인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3사 총동문회



4기 동기회 임원진 총동문회 방문



지난 10월 18일 목요일, 4기 동기회 김상묵 회장과 이상운 前회장, 김재태 사무총장이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었다. 4기 동기회는 2023년까지 총동문회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동문간 소통 및 활동을 했었다. 이날 박경종 총동문회장은 4기 동기회 임원진의 방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총동문회 현안 설명을 통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4기 동기회에서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전기금 100만원을 쾌척해 주어 동문간의 애정을 확인하였다.

3사 총동문회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24. 9. 1. ~ 10. 31. 까지 기부현황입니다.

※기간 외 기부명단은 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 단체

대한건설협회 1,500만원 (2,500만원), 21기 동기회 500만원

■ 학교발전 동창특별기부자('24. 9. 1 ~ 10. 31.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91), 두석주(육사#51) 2250, 류지민(육사#52) 223, 변웅성(육사#53 2141), 김대영(육사#59 2208), 문은석(육사#59 2114), 김진찬(육사#61) 289, 홍희중(육사#61) 2137, 홍인재(육사#63 270), 문준호(육사#67) 278, 한덕수(학군#26 2147), 남기웅(학군#29 252), 구희곤(학군#32 4182), 송경태(학군#37) 2164, 이정환(학군#38 2117), 정우람(학군#46 2138), 홍현신(학군#48 2160), 유성국(학군#54 215), 최재호(학사#29 2164), 임도현(학사#54 2143), 구주현(학사#55 216), 성현애(학사#56 2186), 심정현(학사#58 2174), 최윤정(간사#38 2179), 문길섭(준위) 2122, 송승현(원사) 2121, 강필승(군무원) 2128, 이수진(군무원) 2150, 최지욱(군무원) 2151, 정시연(군무원) 2161

■ 졸업생 가족('24. 9. 1 ~ 10. 31. 기부현황)

김종국(41 김성준 부) 20(460), 조경해(45 황정태 모) 10(1,000), 백인숙(47 모) 2(75), 안순봉(51 박상응 모) 20(1,330), 김현미(52 오치원 모) 2(87), 이영미(52 황성규 모) 6(412), 임성영(52 임강민 부) 2(19), 정정화(52 조강현 모) 1(379), 박일식(53 정필승 모) 2(182), 서완수(55 서지찬 부) 4(158), 정원섭(55 정준영 부) 2(153), 송학빈(56 송용준 부) 2(102), 정희숙(56 배웅휘 모) 20(1,55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860), 김근택(57 김광진 부) 4(102), 김순말(57 김준모 모) 4(98), 박경석(57 박찬환 부) 4(110), 오유미(57 김주현 모) 4(106), 이동희(57 박찬환 모) 6(149), 김한영(58 김범수 부) 10(165), 최결순(58 최승환 부) 2(55), 현석호(58 현민석 부) 6(39), 정신(59 김중현 모) 2(32), 조철만(59 조현웅 부) 6(62), 현석호(59 현정민 부) 6(39), 윤종택(58 윤호영 부) 10(470), 조경해(45 황정태 모) 10(990), 백인숙(47 모) 2(73)

■ 재학생 부모('24. 9. 1 ~ 10. 31. 기부현황)

▶ 4학년부모

김신혜 20(10), 손혜원 40(40), 임성영 2(19), 장은심 20(200), 정미령 10(106), 정지한 10(90), 홍영옥 2(20), 홍혜숙 2(21)

▶ 3학년부모

김혁 2(310), 방점식 500(500), 신지영 10(35), 최영순 20(80)

■ 졸업생('24. 9. 1 ~ 10. 31.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10(26), 남준호 10(155), 이기권 1(570), 임관택 2(118), 최익환 2(120)
- ▶ 2기 윤경혁 10(650)
- ▶ 5기 김일순 15(500)
- ▶ 9기 권영호 10(610), 김현기 6(1296), 윤지환 6(255), 이환희 5(125), 최병학 10(1425)
- ▶ 10기 오정석 20(180), 최영돈 500(9,000)
- ▶ 11기 박이남 100(100)
- ▶ 13기 문성목 20(620)
- ▶ 14기 김길영 2(136), 김중환 2(94), 안호 20(2368), 이순진 10(1,050), 이윤진 20(560), 이종학 2(173)
- ▶ 15기 김성연 2(564), 진동욱 10(10)
- ▶ 16기 이영호 2(163), 이종우 2(198), 황병태 4(349)
- ▶ 18기 구연덕 2(168), 금용백 6(684), 이기환 2(63), 진기상 4(1,152)
- ▶ 19기 김익수 4(259), 이종형 6(368), 이창호 6(690), 홍성식 2(233), 황영태 6(224)
- ▶ 20기 박권순 3(222), 박동순 4(145), 서정열 1(530)
- ▶ 21기 신철수 4(1,342), 이정문 4(286)
- ▶ 22기 이진성 4(289), 정경호 2(83), 조태환 4(213), 천병규 4(524)
- ▶ 23기 김태일 2(288), 신영찬 2(109), 오승욱 4(340), 정철재 4(257), 최승환 2(45), 허강수 4(355)
- ▶ 24기 박종만 4(128), 권오봉 2(252), 김도협 2(270), 김성래 4(108), 모경원 2(265), 박세철 2(108), 박찬웅 2(69), 방성대 6(253), 이문희 2(130), 정정현 2(229), 홍성희 4(120)
- ▶ 25기 김달호 2(7), 문봉성 4(261), 장무수 2(87), 전희준 2(343), 홍은표 2(237)
- ▶ 26기 고창준 2(506), 신태영 2(131), 양성안 2(34), 유근환 2(74), 이덕우 2(165), 이용환 10(65), 이완주 6(226), 이태인 4(138), 임우영 2(282)
- ▶ 27기 김관수 6(193), 김덕중 2(106), 김용범 4(84), 김지덕 2(60), 김호복 6(404), 나현민 4(236), 석수열 2(83), 원희문 5(346), 이희순 2(278), 정철균 2(82)
- ▶ 28기 권승영 1(44), 권양철 4(155), 박용섭 4(249), 유정일 2(73), 윤석찬 2(179)
- ▶ 29기 김강식 2(283), 김태영 4(106), 박성훈 2(191), 박태웅 2(170), 이상일 2(226), 정해균 2(12), 최인섭 2(150), 현대식 2(188), 황재식 2(20)
- ▶ 30기 김광석 4(78), 김홍빈 4(49), 남진오 2(93), 이용학 2(14), 이진태 2(187), 임상달 2(157), 홍성범 2(75), 함민호 2(138)
- ▶ 31기 권동호 4(136), 김민식 4(166), 김영태 2(219), 김태희 2(47),

김희업 2(264), 염항수 2(174), 이재춘 2(248), 이훈복 2(86), 최대집 2(84)

- ▶ 32기 권관덕 6(390), 김화용 2(151), 사인우 2(173), 이태현 2(62), 정영규 4(25), 주정용 2(21)
- ▶ 33기 권해국 4(96), 권오진 2(6), 김남식 2(201), 김성근 4(220), 김현규 4(468), 남석진 2(173), 신성균 2(18), 안경일 2(272), 안준영 6(233), 이정표 6(170), 정용호 2(16), 조용화 2(55), 조재봉 2(148), 홍종원 2(65)
- ▶ 34기 김민오 4(60), 김운성 2(83), 김홍식 6(549), 류영택 4(129), 우진호 2(19), 이무이 2(442), 이재원 2(11), 임창훈 2(118), 정연민 2(18), 정웅민 2(252), 정창근 2(144), 정훈환 2(94), 조수창 2(219), 홍영기 2(63)
- ▶ 35기 김경철 2(47), 김수열 2(107), 박병준 6(422), 박상우 1(104), 박상현 2(66), 송명성 4(136), 유희승 4(30), 이문희 2(187), 이용우 4(8), 은명훈 4(40), 임창규 2(145), 장준삼 2(182), 전성광 2(76), 정병삼 2(189), 정영석 6(161), 정호준 4(170), 하중수 2(63), 한중훈 4(443)
- ▶ 36기 김도희 4(130), 김동혁 2(127), 김현2(166), 박광석 2(16), 박정훈 2(9), 양현승 2(252), 이광희 2(188), 임종수 2(108), 장세호 2(239), 정우철 2(174), 조동권 2(255), 진연수 2(199)
- ▶ 37기 강성봉 2(205), 김양훈 6(351), 김충기 4(223), 김흥년 2(270), 노진철 2(184), 문장진 2(58), 송석복 4(227), 송용섭 4(361), 염태환 2(28), 옥원호 2(170), 이관모 2(176), 이원형 4(351), 임원철 2(191), 정우진 2(108), 정태욱 4(190), 최정호 3(77), 함성규 2(141)
- ▶ 38기 강민 2(49), 김대현 2(52), 모을하 2(269), 문정민 2(154), 문현성 2(267), 서성걸 2(111), 이경식 2(215), 위재익 4(149), 정한옥 2(246), 함기훈 2(122)
- ▶ 39기 권웅 4(92), 김의진 2(163), 김인경 2(121), 김지훈 4(161), 박철균 2(157), 송창현 4(187), 심용운 2(126), 양운차 2(104), 이대호 2(249), 이용철 2(145), 장동준 4(125), 정대겸 2(64),

최현철 2(310)

- ▶ 40기 구자윤 4(246), 김백린 6(256), 김영우 6(358), 김우형 4(82), 김중욱 2(77), 김형수 2(213), 박상규 2(90), 박진하 2(129), 송석준 2(174), 유형선 2(120), 이종섭 2(4), 이호연 10(878), 이훈석 2(96), 조현10(271), 주영우 2(45), 최창국 2(132), 하성남 5(66)
- ▶ 41기 권영철 2(103), 김석진 10(428), 박한지 2(223), 방현욱 2(113), 손종득 2(131), 임성은 4(193), 전종삼 10(387), 정기채 2(223), 최민규 4(183), 최지능 1(245), 홍학현 6(94)
- ▶ 42기 강구한 2(54), 강재석 2(141), 강정희 2(190), 공광석 2(96), 김동우 2(164), 김동진 2(133), 김용민 2(100), 박용준 6(142), 박효찬 2(190), 손병현 2(208), 윤광일 2(46), 윤희철 2(184), 이기욱 2(131), 이성호 2(65), 이승운 2(190), 이용학 2(193), 정만기 2(183)
- ▶ 43기 김민수 1(62), 김인중 2(274), 노창래 2(81), 박희영 2(97), 배동직 2(243), 백두산 4(310), 염태섭 2(82), 이남익 2(101), 이도훈 2(165), 이용희 4(297), 이호선 2(120), 최진호 2(157), 허광석 2(129)
- ▶ 44기 김대은 2(141), 김승돈 4(70), 권용혁 4(104), 서동준 2(176), 안민환 2(54), 염태천 2(129), 오승우 3(148), 이민재 2(168), 이영민 2(177), 이희성 4(211), 최재균 2(108), 황재혁 2(67)
- ▶ 45기 권기호 2(171), 김동호 2(179), 김성수 4(181), 박영일 2(174), 박지훈 2(122), 신유철 2(164), 이인권 2(119), 이진희 4(202), 정재현 2(179), 정진우 2(176), 채희용 2(154), 최중수 2(177)
- ▶ 46기 강승웅 4(330), 권지민 2(50), 김대영 2(77), 김명철 2(163), 김정열 2(163), 김정호 2(280), 김정훈 4(37), 김진용 2(197), 박수만 2(69), 백인정 2(163), 송원상 4(274), 오기리 2(161), 이상운 2(163), 이신화 6(441), 이수원 2(166), 이진철 2(154), 정종택 6(491), 조광원 2(101), 조수빈 2(125), 차승우 2(125), 표상열 2(163), 한영인 2(163), 홍한표 2(154)
- ▶ 47기 ~ 59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가 키워가는 육군3사관학교 사랑

9월 10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단(회장 박한상) 일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일행을 맞이한 재단 이사진과 학교장 및 주요직위자들은 학교발전기금과 학교 위문금을 기부해준 회장단 일행에게 감사 표지를 수여하였다. 학교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에 게시된 우수기부자 명패가 Royalty Club(1억원 이상)으로 기렸다는 다짐을 하여 참석한 학교간부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3사 33기 33명 3300만원 기부, 모교발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결심하다



9월 24일, 3사 33기 33인이 학교발전을 위한 큰 결심을 하였다. 후배생도 교육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1,700만원과 학교내 주물 생도象 제작비 1,600만원도 함께 약정하여 생도대장(기금조성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33기 송찬수 동기회장과 박경호 모금추진대표는 한 목소리로 모교발전에 모든 동문들이 참여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3사21기 동기회 임관40주년 기념 학교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10월 18일, 3사 21기 동기회의 임관40주년 행사시 모교발전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500만원을 21기 총동기회장(장달수)이 재단이사장(이창호)에게 전달하였다. 특별히 모교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교의 미래를 위해 기부해준 21기 동기회에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교내행사뿐 아니라 외부행사에서도 참석한 동문 모두가 모교발전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육군3사관학교가
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www.kaay.mil.kr

육군장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육성

인적구성원의 다양성



최고의 교육시스템



육군3사관학교 정시생도 · 예비생도 모집

모집인원 550명

교육기간 2년(3·4학년 과정)

지원자격

정시생도	학력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 25세 미혼남·여
예비생도	학력	2·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 24세 미혼남·여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선발방법

구분	1차 시험(서류전형)	2차 시험(필기시험)	3차 시험(면접)
정시생도	대학 성적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영어, 간부선발도구 * 1차 성적과 2차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서류제출)
예비생도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생도 생활의 특전과 비전 · 졸업 후 진로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육성

- 산발된 교수 · 교관 · 훈육관 등 우수한 인적자원 구비
- 스마트한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
 - * 스마트 교실 최첨단 실험실 최신 생활관 마일즈 훈련 시스템, 드론축구장 등
-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 실력 향상
 - 서울대, 포스텍, 경북대 등 우수 대학 학점 교류
 - 현직인 · 전문가에 의한 영어 · 제2외국어 능력 배양
 - 전산, 산업기사, 어학 등 총 17종의 자격증 취득 기회
 - 전문기예에 의한 체계적인 체력 단련 및 스포츠 수업을 통해 기초 체력 증진, 무도 단종 획득(대권도, 유도, 특공무술 등), 구기종목 심판/지도 능력 배양
 - 육·해·공군사관생도 교류, 합동성 강화 교육 병과 학교 방문, 0전체험 등을 통해 군사적 시견 배양
 -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통해 핵심 전투 기술과 전술 지식을 갖춘 군사전문가로 성장
 - * 육군3사관학교만의 독자적인 군사 훈련 시스템 구비
 - 프랑스 육사와 교호학생 추진 일본군부후생 학교와 교류 방문 행사 등 해외 협력 강화

생도 생활의 특전

- 대학 3학년 과정으로 편입 후 전액 국비로 3, 4학년 교육
- 노트북 · PC, 각종 피복, 숙식비 일체를 국비로 지원
- 매월 사관생도품위 유지비 지급
- 영어회화능력, 전산정보 · 무도 등 각종 자격증 취득
- 재학 중 전 생도 해외 문화 탐방 실시
-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취미 생활과 다양한 특기 개발
- 현대식 생활관과 다양한 복지시설 이용

졸업 후 진로

- 졸업과 동시에 2개 학사(공·문·이학사 및 군사학사) 학위 취득
-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7급 공무원 상당)
- 국내 · 외 대학원(석 · 박사) 국비 위탁 교육 기회 부여
- 미국 등 우방국 군사 교육 및 해외 공관 파견 근무 가능
- 우방국 국방무관으로 파견되어 군외 기관 역할 수행 가능
- 의무복무(3년) 후 본인이 원할 경우 대부부장기 복무
- 장기복무(19년 6개월) 시 연금 수혜
- 복무시 각종 복지 혜택 수혜 : 휴양시설, 해외시찰 등